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열방의 헛된 풍습 성경: 예레미야 10장 1-11절

Tag: 우상,우상타파,구약,예레미야

- 1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 3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 5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 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 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 8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 9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 10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

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렘10:1-11)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기 위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어떤 우상에게든지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영혼이 자기 안에 간혀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증이 쌓이고 영적인 안달이 나고, 탐욕이 증가하고 짜증이 난다.

그래서 왜곡된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잘 아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우상에게로 유인한다. 그래서 마치 본능에 이끌리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요, 바람직한 일도 아니요, 복된 일도 아니요, 필연적인 일도 아니요, 자유로운 영혼의 선택도 아니요, 자유의지로 인한 이성적인 선택도 아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사람에게는 우상을 통한 인형놀이가 필요한게 아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 영적인 교제의 본능이 우상에게 향하게 된다.

이처럼 본능인 것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도 있게 마련이다. 사람에게 있는 본능은 동물적인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이여 시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시42:1)

이런 영적인 본능을 역이용하여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상을 우리 앞에 아른거리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노략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어리석은 우상에게 쉽게 넘어가는가? 그것

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럽혀져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까닭이다. 사실 이러한 가치관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젖을 빨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의 DNA는 조성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근거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 좋도록 할 것인지를 그 유전 인자에 새겨 넣으신다.

그리고 어머니의 세심한 양육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 순간순간 그 발육의 스위치가 특정 방향으로 켜지게 된다.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이 아이를 참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새들의 세계, 대모가 키운 새는 알을 품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관한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탐욕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수치심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는 어느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사건에 봉착하면 탐심을 품게 된다.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에는 그 탐심이라는 영적인 본능에 이끌리게 되고, 마귀가 그 순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눈 앞에 우상을 아른거리게 한다. (그 우상은 허망한 꿈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요즘의 세대는 스스로가 아이돌이 되겠다는 세대)결국 우상숭배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성과 탐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에게는 또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왕따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강한 신념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다. 이것은 때로 위험하게 작용하기도 하며 어떤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풍습이 되기도 한다.

며칠 전 우리는 이 나라 문학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대면하게 되었다. 이제와서 'me too' 바람이 불어서 집단적인 행동은 이제 그 추행에 대한 성토문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한편의 시가 나오기 전까

지 그 문학계의 풍습은 동물적인 본능을 보통사람의 본능으로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아주 오랜 세월을? 비단 한 사람만의 문화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한 헛된 풍습이지만, 더럽혀진 영혼의 본능은 동물들의 본능과 비슷해져 버렸으며, 오히려 동물들의 본능은 그냥 본능이지만, 더럽혀진 영혼의 본능은 그냥 본능이 아니라 악하고 저주 받아 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가?

근래에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겼다. 심지어 북한의 인권도 북미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고개를 치켜든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 자존심 상했다고 천안함 폭파해도, 연평도를 포격해도 이해하라는 뜻인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집단 공포감이 과연 올바른 두려움인가?

북한은 아직도 조선이고, 왕정이기에,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 당연한 국제관계이고 북한의 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장 선하고 의로운 가치관이고, 기독교는 가치관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

기독교 사상은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관한 한(십계명) 평화의 사상이 아니다.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10:32-36)

성경의 가치관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십계명이 어떤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문화에 적응되도록 왜곡해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조상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였으며,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갖은 고난을 당한 며느리들도 많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난을 당하였다.

신안군 증도와 임자도 등지에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문준경 전도사의 경우도 그렇다. 암태도에서 증도로 시집을 왔지만, 이미 남편은 딴 살림을 살고 있어서 시부모를 20년간 모시며 살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포에 나와 삭바느질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와 오순도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 자살하려 하자 북교동교회 교인들이 구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대)에서 신학을 하고 증도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다. 갖은 시련 속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일제 신사참배 강요로 옥살이를 하고, 6.25 사변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 죄목은 ‘새끼를 많이 낳 씨암탉’이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 김준곤, 이만신, 이봉성, 정태기 등 많은 목회자를 키웠다.

증도는 9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신안 전체는 30%의 높은 신앙율을 보인다.

문준경 전도사가 왜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는가?

왜냐! 열방의 헛된 풍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열방의 헛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분이지라고!

10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
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갑질을 하거나, 열방의 헛된 풍습에 빠진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들에게 역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경우 피신해야 할 것이며, 순교해야 할 순간이 닥친다면 순교해야 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진 자들은 한결같이 여러 가지의 유혹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십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지 말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대손손 받아야 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의 선교 전략 성경: 호세아 2장 14-17절

Tag: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호2:14-17)

오늘날의 선교전략 /우리 교회의 선교전략

1. 나의 식구, 나의 친구,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선교의 대상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14. **ἄνοιμα** (파테이하)‘타일러’;개유하여;설득하다. 매력적인 것으로 유인하다.

개역은 개유(開諭); 이치(理致)를 깨우쳐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

-전도 대상자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그 취향까지도 파악하라.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연구하고, 어떤 말투가 가장 효과적일지를 연구하라.

-끊임없이 눈치채지 못하도록(내밀하게.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계획하고 실천하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기독교 가치관이 더 편리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

-기독교인의 태도는 정죄가 아니다. 동정도 아니다. 경건하게 함께 함이다. 거룩함으로 바둑을 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나 천사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다. 기독교인들도 인간이다. 인간미를 잃지는 말아야 한다. 도덕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배신이나 질투나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경멸 등 인간성 드러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는 즉시 사람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손해를 만회해야 한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서 참되고 진실한 성도들과 한몸인 것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유익을 보여 주어야 한다.

2. 광야로 데려가라 / 광야교회로 데려가라

-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 초청잔치를 겨냥해서 기도하며 전략을 세우라.
- 가장 낮은 단계의 전도부터 시작하라.
- 이단 신천지도 특별 집회를 이용함.
- 전통적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도함
- 일단은 위로하라.
- 상대방이 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 위로하고 함께 해 주고, 비난하지 않고, 도와주고, 덮어주는 것이 전도에 큰 유익이 된다.

3. 그에게 포도원을 주라/ 산업을 주라.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시는 하나님.
-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
-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강인한 경제적 힘을 배우게 하신다.

내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신앙의 선배는 누구일까? 책에서 만난 많은 성자들, 내가 모시고 배운 흠모하는 스승들, 주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합된 모자이크처럼 나의 신앙의식의 상(像)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심층심리를 분석해보면 각 사람의 의식의 뿌리는 인류의식의 공동의 호수에 맞닿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인류 전체와 크리스천 전원의 산물일 것이다. 물론 내가 소개하고 싶은 존경하는 스승들이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너무 많이 알려졌고, 만인의 사표인지라, 나와 관계를 개인화시키면 오히려 그 분들을 격하시키지나 않을까 염려도 되어 숨겨져 있는 무명의 순교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

내 신앙의 원초적 뿌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성결교단에는 알려져 있지만, 한국 교회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6.25사변 때 공산당에게 전남의 낙도 중동리 모래사장에서 59세의 일기로 순교하신 분이다.

그 분은 내 아버지의 외사촌과 결혼하신, 우리 가족의 친척이셨다. 그 분은 지금은 예수님만으로 밤마다 철야로 지새우는 권사님이신 나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에서 나에게 맨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신 내 시골 이모님같은 분이시고,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나를 맞아 주실 것 같은 분이시다. 또한 나의 가족이 학살되고 나도 죽다가 살아난 6.25때, 하마터면 같은 섬에서 순교의 동기생이 될 뻔했던 분이 시기도 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룻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는 우

리 집에 그 분은 종종 찾아오셔서, 몹시 외롭게 하시던 우리 어머니와 머물면서 전도집회를 열곤 하셨다. 수수한 아주머니처럼 고무신을 신고 과자 선물을 듬뿍 가지고 오셔서 껴안고 기도해주시곤 하셨다.

초등학교도 다닌 일이 없고, 도레미파를 배운 적도 없지만, 그 분 특유의 낭랑한 목청으로 당시 이성봉 목사님이 많이 부르시던 허사가나 부흥성가, 천당가를 부르면, 우리 집 마당으로 동네 아낙네들과 어린이들과 강아지까지 다 모였다. 그러면 그 분은 일장(一場) 전도 설교를 시작하곤 했다.

나는 당시에 그 분이 무식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분이 오시면 잔치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내 신앙의 혈액검사를 하고 원초적 뿌리찾기를 해보면 그 분은 내 신앙의 지하실에 예수의 씨앗을 최초로 심어준 분으로 발견될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죽임당한 여인은 가엾다. 버림받은 여인은 더 측은하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라고. 문전도사님은 친정도 시댁도 꽤 잘사는 집안이었다. 열일곱살 때 암태 문씨 집안에서 중동리 정씨 집안으로 시집왔는데, 결혼 초야(初夜)부터 버림받고 며칠 안되어 신랑이 집을 나가 다른 섬에서 소실을 얻고 살림하면서부터 잊혀진 여인이 되었다.

시집에서 20년을 살 때, 길쌈하고 바느질하며 들일하고 부엌일하며 극진히 시부모님을 모셨다.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으나 피눈물나는 시집살이도 참아야 했다. 손재봉틀로 삼바느질 해서 송아지를 여러

마리 사서는 여러 집에 나누어 주었다가 크면 이익을 서로 나눴는데, 모은 돈은 남편이 가져다가 딴 살림하여 소실과사는데 써버렸다. 하도 한이 맺혀서 기도문을 써서 천지신명에게 소지(燒紙)를 올린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다.

불쌍한 딸자식처럼 측은하게 사랑해주었던 시아버지가 그에게 글을 가르쳐주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지우며 글을 익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던 가운데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삼년상(喪)을 치르고 목포에 사는 오라버니의 권유로 셋방 하나를 얻어, 20년 시집생활을 청산하고 손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도시로 올라왔다.

예수님과 의 만남

그 무렵 성결교단에는 오순절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목포에는 북교동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부임하여 축호전도니 하며 부흥성회에 불이 붙은 때였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전도팀의 그물에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성봉 목사님이 그에게는 직접적인 천사였다. 천국이 있었다. 눈물의 샘이 터졌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고 입맞추었던 여인 속에서 문 전도사님의 삶의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기에 그토록 오래인 그리움이여!"(어거스틴의 고백). 늦게야 님을 만나나 그 분에게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밤을 살고 새벽을 살며 열심히 배우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를 했다.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다. 그 나이 37세 때였다. 신앙성장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 교회집회, 장례식, 혼인식 때면 문 집사님은 그 특유의 낭랑한 목소리로 특송을 했다.

일가 친척, 친지들 집을 칩냉쿨같은 연줄을 타고 행상여인같이 축호 전도로 누볐다.

첫 전도여행을 암태면의 친정으로 떠났다. 20년만에 집을 찾은 불쌍한 생과부 딸을 맞은 부모님의 가슴은 아팠다. 골수 유교전통의 아버지께 전도하기란 무리한 일이었다.

"네가 시집가서 고생하더니 서양귀신 들려 실성했구나."하고 오물을 퍼다 머리 위로 퍼부으면서 "씩 물러가라."할 정도였다.

길을 가며 찬송하고 꿈 속에서도 찬송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한 맺힌 인생 때문에 눈물의 샘은 마를 날이 없었다.

경성성경학교는 성결교신학교였다. 6개월은 전도실천하고, 6개월은 공부하는 6년제 학교였다. 문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청강생이었으나 뒤에 원입생이 되었다. 물론 고학이었다. 마늘장수, 물장수, 샴바느질 등 온갖 일을 했다. 고되고 허기졌지만 꿈만 같았다.

그의 기숙사 방은 '사랑의 방'으로 소문이 났다. 여학생들이 어머니 처럼 따랐다. 그의 삶은 항상 사도행전의 원색적인 신앙생활이었다. 한 번은 병든 홀어머니 때문에 울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단 하나의 재산인 손재봉틀을 들고 나가 팔아서 100원을 마련해주었다. 또 한번은 유일의 유산인 명화병풍을 200원에 팔아 딱한 신학생을 도왔다.

이런 일화도 있다. 6개월의 인턴 실습을 마치고 목포역으로 돈 없이 가고 있었다. 학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사과 행상하는 여집사님이 "돈도 없이 나왔지라우?"라고 말했다. 여집사는 문 전도사님에게 돈 한푼 없음을 알고 있었다.

문 전도사님은 "사람이 가지, 돈이 간당가?"라고 대답했다. 그 여집 사님이 학비를 마련해주었다. 이것이 그 분 삶의 연속이었다.

씨앗의 씨앗은 셀 수가 없다

열한 개 섬을 24시간 이 섬에서 저섬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니셨다. 그 분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섬사람들에게 그 분은 예수의 증인이었고 편지였다.

중동리교회를 세울 때에는 시숙(媳叔)과 전도받은 시집 친척들, 이만신 목사님 자당(慈堂)을 포함하여 20여 명 성도들과 함께 한 달동안 목재와 기와를 이어 나르고, 터뒹고 흙 일구느라 손발이 터졌다. 그렇게 하여 대초리, 방충리, 우전리, 병풍리, 진리, 재원 등 많은 교회들이 그 분의 몸으로 세워졌고 또 지교회들도 세웠다.

그 분이 전도해서 키운 성결교 중진 목사인 이만신, 이봉성 목사 외 10여 명의 목사님들, 그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오늘도 그 순교정신을 이어 복음의 씨앗을 부리고 있다. 진리교회에서는 그가 키운 이관일 장로, 이관성 집사의 두 가정, 열세 명이 순교했고, 유일한 유족인 이인재 목사님은 그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다.

렘브란트의 명화 「십자가형」에는 그 현장의 다양한 인물들의 독특한 개성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그림자처럼 희미한 인물 하나가 숨어있다. 렘브란트는 그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시사한다. 문준경 전도사님 가족들 가운데 나는 저만치 멀리 서있는 렘브란트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내 속에서도 씨앗은 심겨져 퍼지고 있다.

"사과 한 알의 씨앗을 셀 수 있어도 씨앗의 씨앗은 셀 수가 없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일제 때 성결교단 폐쇄령으로 친일 앞잡이들이 빼앗아 경방단 본부로 사용했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로 시달림을 받았다. 성도들이 비밀 예배를 드릴라치면 골목에서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심한 각혈을 하며 사경을 헤메이기도 했다.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변신하여 온갖 박해와 폭행을 자행했다. 6.25 직전에는 예레미야의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끊은 가마`의 경고를 하며 어느 여인보다 많은 우국의 눈물을 흘렸다. 그 분은 자신의 순교를 예감했는지 미리 관을 짜놓고 수의를 손수 만들어 놓았었다.

마을의 사제, 만인의 목자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자 몸이 약하니 공기 좋은 섬에 와서 좀 휴양하라고 권해서 나는 친구 목사를 데리고 문 전도사님 댁에서 3개월 동안 식객(食客)이 된 일이 있었다. 그 분의 교회나 사택은 차라리 목민센타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 집은 항상 너댓 명씩 귀신들린 여인, 반신불수되어 쫓겨난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였다.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

문 전도사님은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랑같은 것을 들쳐메고 나가 누룽지나 잔치집, 제삿집의 음식을 건어서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바랑 속에는 김기약이나 연고, 민간비방약 같은 것이 듬뿍 있어서 병자들을 심방해 부담없이 약을 먹이고

말라주고는 만져주고 기도를 하였다. 병이 소문나게 잘 나왔다. 신불신(信不信)을 가리지 않았다.

초상집도 찾아가고 싸움하는 집도 찾아갔다. 모두의 가난과 고통에 자기 피부를 맞대고 살았다. 그 분은 산파는 아니었으나 아기를 받는 데는 누구보다 명수였다.

그 마을은 미신이 많은 곳이었다. 재앙을 입고 동티가 나면 무당을 불러 굿하는 것이 행인데도 많은 집에서 무당 대신 문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청했다. 내 친구는 그가 무당같다고 했다. 나는 "이보다 더 거룩한 무당도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그 마을의사제(司祭)였고 간호사, 산파, 목자, 만인의 어머니였다.

일제시대 이 마을에 장질부사(염병)가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전염이 무서워 버려진 환자들이 많았다. 가족들조차 시체 치우는 일을 기피했는데, 문 전도사님이 "나는 어차피 흠뻑이니 죽어도 부담이 없다."며 환자를 돌보고 시체를 매장한 이야기는 소문난 미담으로 전해진다.

내가 신학교에 간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문 전도사님이셨다. 한 번은 내게 찾아와 돈이 있는지 물으셨다. "어떻게 되겠지요."하고선, 그때 마침 미군부대에 다니던 친구가 가져다준 다이야찌 고약 수천개를 목회하는 데 쓰십사고 드렸다. 그런게 그것을 집집마다 팔아서 근1년 학비를 만들어 보내주신 일도 있었다. 나와 친구가 그 집에 머물던 석달 동안, 기뻐하시며 펄펄 뛰는 생선요리, 젓갈, 풋나물 등으로 지성을 다해 끼니 때마다 메뉴를 바꾸어 잔치상을 베푸셨다.

백사장의 순교

6.25 대는 남편과 소실이 붙잡혀 있는 감옥에 매일같이 세탁이니 음식이니 뒷바라지를 해 모두를 감격시키셨다. 지방 빨갱이들은 문 전도사님이 모두의 존경이 크므로 직결 처분을 못하고 상부인 목포 내무서로 이송했는데, 목포는 이미 빨갱이들이 도망가고 없어서 자동 석방이 되었다.

그런데 문 전도사님은 교인들을 못잊고 특히 양딸 삼은 백 전도사님을 못잊어 모두가 말리는데도 도살장같은 중동리로 되돌아와서 붙잡혀 모래밭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죄목은 '새끼 많이 낀 씨암탉'이란 것이었다.

찢리고 맞으며 개처럼 끌려갔다. 가상(架上)의 칠언(七言)처럼 사뭇 기도를 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전도사님이 백 전도사님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형지(刑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분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주님을 연상케 했다.

백 전도사님은 그 분을 못잊어 3년 동안 흰 소복을 입었고,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신다. 그 백 전도사님은 낙도 중의 낙도, 문 전도사님이 세운 재원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1950년 10월 5일,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파도소리도 침묵하는 칠흙의 심야에 그 분이 30년을 살았던 백사장으로 끌려갔다. 죽창으로 찢리고 밧길로 채이고 총대로 찍히어 반죽음이 되면서도 사뭇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스테반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몸이 별집이 되기 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 문

전도사님이 순교현장에서 드린 최후의 기도였다. 이 때 문준경 전도사님은 59세였다.

못잊어하는 사람들

1951년 순교 1주년 되는 그 분의 환갑날, 장례추도식이 있었다. 호남지방 성결교 남녀 교역자들이 다 모여 건을 쓰고 상복을 입었다. 전도받은 교인들, 도움받고 못잊어하는 사람들, 전도받은 시가집 사람들, 친정 일가 친척들, 그를 죽였으나 용서받은 식구들, 동네사람들 등 흰옷 입은 구름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상여 뒤를 따랐다. 서울에서 온 어느 성도는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추모 인파가 많다."고 했다.

중동리교회당은 순교의 피묻은 현장의 모래로 만든 벽돌로 신축되었다. 평소에 그 분은 양딸인 백 전도사님에게 자기는 정씨 문중 선산에 묻힐 수 없으니, 자기가 죽으면 그 산 아래 밭의 한 모퉁이에 묻어달라고 했다. 순교 1주기 때 이 얘기를 들은 정씨 문중에서는 전도받은 분들도 많아 문중회의를 열었다. 결국 그 분은 문중을 빛낸 분이니 선상 중앙에 모시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지금 그 분의 묘는 정씨 문중 선상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 교회의 밑거름처럼 숨겨져 있는 한 여성 순교자, 한하운의 가도 가도 전라도길, 황토길을 더 가서 노두길 나룻배길 낙도길가에 편진달래같은 우리들의 룿이여, 에스더여, 마리아여! 어머니라고 불러버리고 싶은 나의 아주머니.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더라도 현모양처였을 분. 착하디 착하신 집사님, 충성스런 여 전도사님, 갈릴리에 태어났더라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안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십자가 밑에서, 주의 무덤

가에서 울고 있었을 분. 내가 부탁하면 대신 죽기라도 해주셨을 문준경 전도사님... 중동리 백사장에 피흘려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가 중국 땅에 일억 배로 퍼지소서.

이 작은 글을 통해 나의 추모와 사랑과 존경을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전에 드립니다. 또한 문 전도사님이 제게 심으신 믿음의 씨앗을 퍼뜨려 10면명 대학생을 중국 땅에 보내고 싶습니다.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 성시화운동 총재
간증모임/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 성시화운동 총재